

광주시 농업인 월급제 5개 자치구 확대 시행

14개 지역농협과 업무설명회 희망농가 2월20일까지 신청 지난해 시범운영 긍정적 결과

광주시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범 운영한 농업인 월급제를 올해부터 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난 23일 농업 광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5개 자치구, 농협 광주지역본부 및 관내 14개 지역농협 관계

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 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월급제 시행 대상은 관내 14개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단, 재배면적이 최소 3000㎡에서 최고 3만㎡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20일까지 해당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협과 약정체결을 통해 그동안 지역농협에서 한꺼번에 지급 받았던 수매대금을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20만~180만원을 월급형식으로 나눠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5000여 만원을 투입해 월급제 운영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협이나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 및 농업인 영농의욕 고취, 농가 부채 감소 등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농업인 월급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며 "올해부터 관내 전체 자치구로 대상을 확대한 만큼 많은 농가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 전통음식 강좌 수강생 150명 모집

광주시 북구는 "오는 2월 22일까지 '2019년 상반기 전통음식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이번 강좌는 3월부터 6월까지 주 1회, 15주 과정이며 ▲발효·저장음식 ▲자연주의음식 ▲향토음식 ▲떡·한과 ▲무형문화재 내림음식 등 5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발효·저장음식은 고추장, 장아찌, 발효 식초 등 실습 위주로 강의하고 자연주의음식은 맛간장, 연근밥, 단호박밥 등 약선 요리에 대해 강의한다. 향토음식은 간장계장, 전골류 등 지역

토속음식과 한식요리를 교육하고 떡·한과 과정은 절편, 약과, 강정 등 떡류와 한과류 만드는 법을 익히게 된다. 강사로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이미지, 장장미 명인을 비롯한 박은주, 박혜란씨가 나선다. 북구는 또 직장인과 주부들을 위한 '주말 생활요리 강좌'를 신설하고 2월 22일까지 수강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수강료는 과정별 12만원(재료비 별도)이다. 문의 062-410-6640.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수수료 제로' 제로페이 가입하세요

남광주시장 상인회, 설명회·이벤트 홍보 나서

광주의 대표적인 수산물시장인 남광주시장 상인회(회장 손승기)와 특성화첫걸음시장육성사업단(단장 장복수)이 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제로페이 직불결제 시스템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부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개발해 지난해 12월 서울·부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이다. 올해부터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율은 전년도 매출액이 8억원 이하는 0%이며, 8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로서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

료 1.5~2%에 비해 크게 낮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결제 대금이 즉시 이체돼 가맹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도 40%의 소득공제 등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 시, 스마트폰에 설치된 민간 간편 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촬영, 결제금액을 입력해 전송하면 된다. 제로페이 서비스에 대한 가맹점 가입과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로페이'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남광주시장상인회는 시장 상인들의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점



남광주시장 상인회와 특성화첫걸음시장육성사업단이 최근 시장 입구에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입을 권장하는 플래카드를 걸고 점포 안내 및 교육에 들어갔다.

포를 찾아 가맹점 가입 신청과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2월에는 제로페이 사용 고객에 대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남광주시장이 광주에

서 직불결제의 선두주자로 나서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고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 본궤도

조성단 실천과제 선정...환경부에 생태하천복원 사업 신청

광주시가 광주천을 시민들이 소통하고 다시 찾는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24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의 실천과제와 수생태계 복원계획 결과를 토대로 올해 환경부에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은 광주시민의 삶과 애환이 담겨져 있는 추억의 공간이자 광주의 젖줄인 광주천을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태 친수하천으로 복원하고, 광주천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난해 9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광주시 10개 부서, 유관기관 6곳, 교수·

환경단체·민간전문가 등 총 43명이 참여하는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단'을 구성했다. 조성단은 그동안 3회에 걸쳐 회의 를 열고 실천과제 9개와 기타과제 5개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천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착수해 조성단에서 제시한 실천과제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천과제로 생태하천복원분과에서는 광주천의 수질개선, 수량확보, 양동 북개사가 시민힐링 쉼터 조성 방안,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관광문화벨트분과에서는 삼향(예향, 미향, 의향) 순례길 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양림동 역사마을·남광주시장 등 광주천 인근 전략적 거점과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에코센터·에코파크 조성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그릇 비우고, 환경 채우는 '잔반 Zero' 운동

서구, 금당·빛고을초등학교 2곳 대상 시범운영

광주시 서구가 그릇을 비우고, 환경은 채우는 '잔반 Zero' 운동을 추진한다. 24일 서구에 따르면 잔반 Zero 운동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시간에 급식을 잔반 없이 다 먹으면 쿠폰을 지급, 학기별 가장 많은 쿠폰을 모은 학생 5명을 선정, 문화상품권 2만원을 제공한다. 서구는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에 발맞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계획했다. 금당초등학교와 빛고을초등학교 등 2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이들 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 잔반을 남기지 않는 학생에게 영양교사가 쿠폰을 지급한다. 학교에서는 가장 많은 쿠폰을 모은 학생 5명을 선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서구에서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서구 관계자는 "잔반 Zero 운동은 학교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확산시키고 학생 스스로 환경을 배려한 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며 "환경을 생각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062-360-7323)에 문의하면 된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청년 정책,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세요

동구,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광주시 동구가 청년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구 청년네트워크 위원 12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위촉·운영 중인 청년네트워크는 그동안 청년토론회, 콘서트 개최 등 구정에 청년들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동구는 기존 20명으로 운영되던 청년네트워크를 다양한 청년계층 참여에 보다 활성화하고자 30명으로 증원해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네트워크 위원은 참여·소통, 주거, 복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

야에서 매월 분과회의 토론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 모니터링을 참여한다. 동구는 청년네트워크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청년참여예산제'에 반영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2월 8일까지이며 동구에 거주하거나 동구 소재 직장인·대학생(휴학 포함)으로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lsi7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08-2303.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남구, 설 앞두고 공사·물품대금 조기 집행

광주시 남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예방과 건설업체의 자금 유동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비와 물품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예산 조기 집행이 이뤄지는 분야는 구청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와 물품 구입건 등 총 53건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18억55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15억1300만원 가량은 각종 공사와 관련해 현장 근로자 및 도급업체에 지급될 금액이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노면 청소용 진

공흡입차량 구입비 6억7389만원을 비롯해 송하동 화방배수소 정비 공사 준공금 2억9883만원 등이다. 또 남구는 명절 자금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위탁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대금 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지역 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근로자들도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등)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11억(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은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감정/시세-11억
- 급매 - 8억

문의. 010-6834-7400